

‘이 시대의 춤꾼, 명작을 춤추다’

해설 임학선

일시 : 2014년 6월 20일 금요일 8시

장소 : 두리춤터 1F FOYER

주최·주관 : **두리춤터**

기획 : **두리춤터**

조흥동류 입춤

춤에 있어 입춤이란 서춤과 같이 단아하고 정결하며 마음을 기다듬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은은하게 우리나라의 감성을 육신을 통하여 무원과 무맥을 풀어내는 춤으로 궁중 정제의 절제된 품위와 서민의 소탈한 마음의 조화를 함께 간직한 우리춤의 원초적 춤사위로 옛날 권변이나 무용 연구소에서 기본적으로 정하는 춤세계 입문의 춤이라 할수 있는 춤이다.



황규선

황규선 무용학원 대표
조흥동 일류춤 보존회 회계
강신영류 태평무 전수자

부채춤

부채춤은 고전무용에는 없는 것으로 신무용 계열에 속하는 창작무용으로 무용가 김백봉에 의해 창작되었으며, 덩이를 입고 머리에는 화려한 족두리를 쓰고 양손에는 꽃 그림이나 깃털로 장식된 화려한 부채를 들고 추는 춤이다. 이번 작품은 군무로 많이 추어지는 부채춤을 안춘자 선생님의 지도로 새롭게 재해석 하여 솔로로 재구성 함.



김홍주

하남전통예술단 대표
서울예술단단원 역임
정동극장무용팀장 역임
김홍주무용아카데미 원장

이매방류 살풀이

이매방 (李梅芳: 1927~)류 살풀이 춤은 남도 무악인 살풀이곡에 맞추어 추는데 흥이 많고 춤 파디파디에 맛이 흐르는 한편 즉흥성을 띠고 있는 특징이 있다.



임영랑

성신여자대학교 이학박사
수원도립문화센터, 광운대, 성신여대 등 다수강의
임영랑 무용단 대표

홍춤

이매방 선생님의 홍춤은 흥을 안으로 삭이고 드러냄을 자제하여 더 큰 흥을 가슴에 담은 응축된 절제미를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독특한 춤이다.



김명언

성균관 대학교 체육학과 박사 수료
중요무형문화재 제 97호 살풀이춤 이수자
수원대학교 사회 교육원 한국무용 교수

두리춤터

두리춤터

두리춤터는 1990년 설립된 두리춤터는 춤공간과 의식의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단장된 도심 속 창작공간이다. 차별화되는 극장공간 환경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두리춤터는 B1 BLACK BOX와 1F FOYER의 2관으로 운영되며, 3F STUDIO, 4F~5F OFFICE, 휴식공간의 규모를 갖추고 있다. 각층의 공간 특성에 따라 전통춤과 창작춤은 물론 새개념 新양식의 융복합공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연을 올리고 있으며, 무용예술의 균형 있는 발전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공연·연구·교육을 병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공연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 시대의 아트 허브를 꿈꾸고 있다.

‘이 시대의 춤꾼, 명작을 춤추다’ 사업목적 및 의도

‘이 시대의 춤꾼, 명작을 춤추다’는 한국춤의 균형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기획되는 프로젝트이다. 우리춤의 가치 창출 및 이 시대의 진정한 무용예술문화를 확립 정착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이번 공연은, 시대와 지역, 세대와 류파, 장르 간의 격차를 줄이는 한편, 인기종목의 레파토리 뿐만 아니라 숨겨져 있는 명작들을 발굴, 묵묵히 명무의 길을 가고 있는 40대 무용가들의 진정성 있는 춤으로 올린다.

두리춤터 오시는 길

지하철 7호선 내방역 6번 출구 도보 10분

지하철 2호선 방배역 4번 출구

142, 148, 406번 버스 방배프라자 하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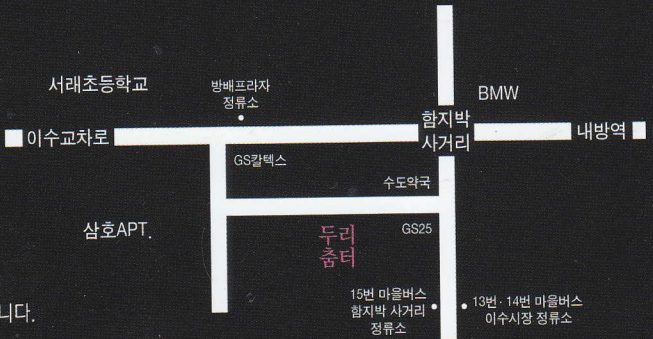
15번 마을버스 함지박 사거리 하차

지하철 4호선 이수역 1번 출구

마을버스 13,14번 이수시장 앞 하차

좌석은 자유롭게 선착순 입장입니다.

관객입장은 공연시작 30분전부터 가능합니다.



두리
춤터
Since 1990